

「中企 ESG 경영 대응 동향 조사」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구분	내 용
① 中企 ESG필요성 인식과 준비수준	· 中企 절반 이상 ESG 경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나, 4곳 중 1곳만 준비됐거나, 준비 중이라고 응답 * 준비됐거나 준비 중(25.7%), 관련 준비계획이 없다(34.6%), 준비할 계획이다(39.7%) ·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ESG 경영 대응 준비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준비 응답비율: 10억 미만(22.2%), 50억 미만(21.9%), 100억 미만(24.6%), 300억 미만(29.9%), 300억 이상(40.0%) · 中企 절반 정도가 ESG 경영이 매출 등 경영성과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 * 경영성과 향상(47.1%), 기업 이미지 개선(29.3%), 자금조달 여건 개선(9.8%), 거래처 요구(7.5%) * 탄소 다배출업종인 화공(14.3%)은 거래처 요구에 따른 ESG 경영 필요 응답이 전체 대비 높은 편
② 中企 ESG경영 실천 현황과 취약 부문	· 中企, ESG 중 환경(E)(47.7%) 분야, 가장 취약 * 환경(47.7%), 사회(32.8%), 지배구조(15.1%) 순으로 준비가 어렵다고 인식 · 온실가스 저감과 에너지 등 자원소비 절감 부문이 가장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해당분야는 실천도도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 * 난이도 : 온실가스 저감(18.4%), 환경 법규 준수(16.7%), 근로환경(14.0%), 에너지 절감(12.6%) 순 * 실천도 : 근로환경 개선(19.5%), 환경 법규 준수(15.7%), 공정거래(13.6%), 지역사회 공헌(9.9%), 윤리경영 등(9.4%), 에너지 절감(9.2%), 온실가스 저감(8.0%), 투명 회계공시(5.7%) 등 · ESG 중 사회 부문(46.6%) 실천도가 가장 양호하고, 지배구조 부문 실천도는 다소 저조한 편 * 부문 : 사회(46.6%), 환경(32.7%), 지배구조(17.8%) * 세부활동 : 근로환경 개선(19.5%), 환경법규 준수(15.7%), 협력사와 공정거래(13.6%) 등
③ ESG 대응 애로사항과 정부지원방안	· ESG 경영 도입 시, 비용부담과 인력부족이 가장 큰 어려움 * 비용부담(37.0%), 인력부족(22.7%), 가이드라인 부재(16.3%), 도입 필요성 확신 부족(10.0%) 등 ·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 방안은 정책자금(53.3%), 진단·컨설팅(38.3%), 가이드라인 제공(29.7%), 역량강화 교육(20.3%), 인센티브 제공(19.0%) 등
④ 시사점	· (ESG 경영 확산) 中企 절반 이상은 ESG 경영 필요성에 대해 체감하고 있었으나, 준비도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中企 대상 ESG 인식 개선과 인센티브 방안 적극 도입하여, ESG 경영 실천 분위기 확산 필요 · (취약한 환경분야, 적극적 정책 지원 필요) 中企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등 자원소비 절감 등 ESG 중 환경 분야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저탄소·친환경 부문 정책 지원 강화 필요 · (금융 등 다각적 지원) ESG 경영 도입시, 비용부담과 함께, 전문인력 부족, 가이드라인 부재 등을 애로사항을 꼽아, 자금 지원 이외에 진단·컨설팅, 가이드라인, 인력양성 등 다각적 지원 필요

[요 약]

I. 中企 ESG 경영 필요성 인식과 준비 수준

■ 中企 절반 이상이 ESG 경영에 대해 인지

- ESG 경영에 대해 中企의 절반 이상(53.3%)이 “알고 있다(대충 안다(41.3%) + 잘 안다(12.0%))”라고 응답함. “모른다(46.7%)(전혀 모른다(22.7%)+대체로 모른다(24.0%))”라는 응답도 절반 정도 차지

■ 中企 10곳 중 6곳은 ESG 경영이 필요하다고 인식했으나, 준비도는 저조

- ESG 경영 준비 필요성에 대해 中企의 58.0%가 “필요하다(필요하다(44.7%) + 매우 필요하다(13.3%))”고 응답했으며, “보통이다(33.3%)”, “필요하지 않다(6.3%)”, “전혀 필요하지 않다(2.4%)” 순으로 나타남
- ESG 경영 대응에 “준비가 됐거나 준비 중”이라는 응답은 25.7%에 불과했으며, “준비할 계획이다(39.7%)”, “관련 준비계획이 없다(34.6%)” 순으로 나타남
- 매출 규모가 클수록 ESG 경영 필요성을 높게 인식
 - * “필요하다” 응답 : “10억 미만(51.9%)”, “50억 미만(55.2%)”, “100억 미만(56.1%)”, “300억 미만(62.7%)”, “300억 이상(70.0%)”

■ 中企 절반 정도가 ESG 경영이 매출 등 경영성과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

- ESG 경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매출, 이윤증가 등 경영성과 향상”이 47.1%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기업 이미지 개선(29.3%)”, “투자자 관리를 통한 자금조달 여건 개선(9.8%)”, “국내외 거래처 요구(7.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탄소 多 배출업종인 화공은 “기업 이미지 개선(42.9%)”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아 타 업종과 차이를 보임

■ 中企 대부분 ESG 평가 경험 없음

- 中企의 92.0%는 ESG 평가 경험이 없었으며, “경험이 있다”라는 응답은 8.0%에 불과함

■ ESG 평가 경험이 있는 中企의 79.2%는 평가결과가 거래량 확대 등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응답

- ESG 평가 경험이 있는 中企의 79.2%는 평가경험이 사업에 영향을 끼쳤다고 응답
- ESG 평가 결과의 영향으로는, “거래 조건 개선, 거래량 확대”가 73.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해결 후 납품(15.8%)”, “거래량 축소(10.5%)” 순

II. 中企 ESG 경영 실천 현황과 취약 부문

■ 中企, ESG 중 사회부문 실천도가 가장 양호

- 근로환경 개선, 협력사와 공정 거래 등 사회부문 ESG 경영활동의 실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46.6%), 이어서 환경(32.7%), 지배구조(17.8%) 순임

* 실천도 : 근로환경 개선 (19.5%), 환경 법규 준수(15.7%), 협력사와 공정거래(13.6%), 지역사회 공헌(9.9%), 윤리 경영 및 반부패 활동(9.4%), 에너지 등 자원소비 절감(9.2%), 온실가스 저감(8.0%), 이사회 다양성, 주주 권익 보호, 투명한 회계 공시(5.7%) 등

■ 中企, ESG 중 환경 부문이 가장 취약

- ESG 중 “환경부문(47.7%)”이 가장 어렵다고 꼽았으며, “사회(32.8%)”, “지배구조(15.1%)” 순임
- 환경부문 중 “온실가스, 폐기물 감축 등 환경오염 저감(18.4%)”과 “환경 법규 준수(16.7%)”가 가장 어렵다고 응답함

III. 中企 ESG 경영 도입 시 애로사항과 필요한 정부지원 방안

■ ESG 경영 도입 시 비용부담과 인력부족이 가장 큰 어려움

- ESG 경영 도입 시 애로사항으로는 “비용부담”이 37.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문 인력 부족(22.7%)”, “가이드라인 부재(16.3%)”, “도입 필요성에 대한 확신 부족(10.0%)”, “복잡한 ESG 평가기준(6.7%)” 순임

■ 정책자금, 진단·컨설팅이 ESG 대응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 방안

- ESG 경영 대응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 방안으로는 “ESG 경영 우수기업 대상 정책자금 지원”이 53.3%로 가장 높았으며, “진단·컨설팅(38.3%)”, “가이드라인 등 정보 제공(29.7%)”, “역량 강화 교육(20.3%)”, “인센티브 제공(19.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中企의 대부분은 ESG 경영 우수기업 대상 정책자금 우대 동의

- 응답 中企의 94.3%는 ESG 경영 우수기업 대상 정책자금을 우대하는 것을 동의함
- 우대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ESG 경영이 어려운 中企 대상 역차별, 소기업은 해당없음, 시기 상조 등으로 응답함

IV. 정책적 시사점

- **중소 절반 이상은 ESG 경영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으나, 준비 수준은 다소 미흡하여, ESG 인식개선과 인센티브 방안을 적극 도입하여, ESG 경영 확산 필요**
 - 중소기업의 10곳 중 6곳 정도(58.0%)는 ESG 경영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으나, ESG 경영에 준비됐거나 준비 중이라는 응답비중은 25.7%에 불과하여, 준비도는 다소 부족
 - 지속적인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ESG 경영 실천 분위기 확산 필요
- **ESG 경영 도입 시 비용부담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중소기업 ESG 경영 전환을 위한 정책자금 등 금융지원 확대 필요**
 - 응답 중소기업은 ESG 경영 도입시 “비용부담(37.0%)”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으며,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방안 또한 “정책자금(53.3%)”이라고 응답하여, ESG 경영 전환을 위한 정책자금과 보조금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비용 부담 이외에, 전문 인력 부족, 가이드라인 부재, 확신 부족 등을 애로사항으로 꼽아, 진단·컨설팅, 인력양성 등 다각적 지원 필요**
 - ESG 경영 도입 시 애로사항으로는 비용 부담(37.0%) 이외에, 전문인력 부족(22.7%), 가이드라인 부재(16.3%), 도입 필요성 확신 부족(10.0%) 등을 꼽아,
 - 자금 지원 이외에 ESG 경영 도입 필요성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 대상 진단·컨설팅, 가이드라인 등 정보제공, 역량강화 교육 등 다각적 지원 필요
- **업종별로 ESG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 방안이 달라, 세심한 정책 지원 필요**
 - 전기·전자 업종은 “ESG 경영 가이드라인(44.8%)”이, 식료 업종은 “정책자금(57.9%)”과 함께 “ESG 진단·컨설팅(57.9%)”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세분화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
- **중소기업이 가장 취약한 ESG 분야는 환경 부문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 필요**
 - 중소기업이 ESG 부문 중 “온실가스 저감”과 “에너지 등 자원소비 절감” 분야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해당 분야의 실천도도 상대적으로 저조함.
 - 중소기업 저탄소·친환경 전환을 위한 정책자금, 진단·컨설팅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 필요

01 |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코로나 이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요소로 대두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의 ESG 대응 준비수준과 애로사항 등을 조사하여, 향후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 개요

구 분	주요내용
조사대상	◆ 중진공 정책모니터링단 1,000개사
조사기간	◆ 6월 15일(화) ~ 6월 18일(금)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유선 및 SMS, E-mail 등 조사
표본크기	◆ 유효응답 기준 300개
표본오차	◆ 전체 95% 신뢰수준에서 $\pm 4.73\%P$ $\pm 4.73\%P = \pm 1.96 \sqrt{\left(\frac{p(1-p)}{n}\right) \times \left(1 - \frac{n}{N}\right)} = \pm 1.96 \sqrt{\left(\frac{0.5(1-0.5)}{300}\right) \times \left(1 - \frac{300}{1,000}\right)}$ (95% 정밀표본오차 Z값은 1.96, P는 관측치로 최대 표본오차 산정을 위해 50%(0.5) 적용, n(표본의 크기), N(모집단의 크기))

○ 조사 내용

구 분	주요내용
중소 ESG 경영 필요성 인식과 준비 수준	◆ 중소기업 ESG 경영 인식과 준비 수준 ◆ 중소기업 ESG 전담조직 마련 여부 및 평가경험
중소 ESG 경영 실천현황과 취약 부문	◆ 중소기업 ESG 경영 실천 현황 ◆ 중소기업 ESG 중 가장 준비가 어려운 부문
중소 ESG 대응 애로사항과 정부지원 방안	◆ 중소기업 ESG 경영 도입 시 애로사항 ◆ 중소기업 ESG 경영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 방안

○ 응답자 특성

구 분	업체수 (개)	비중 (%)
전 체	300	100.0%
지역	서울	10.0
	인천 / 경기	27.0
	강원	3.3
	대전 / 충청	10.0
	광주/전북/전남	11.0
	대구 / 경북	14.7
	부산/울산/경남	23.0
	제주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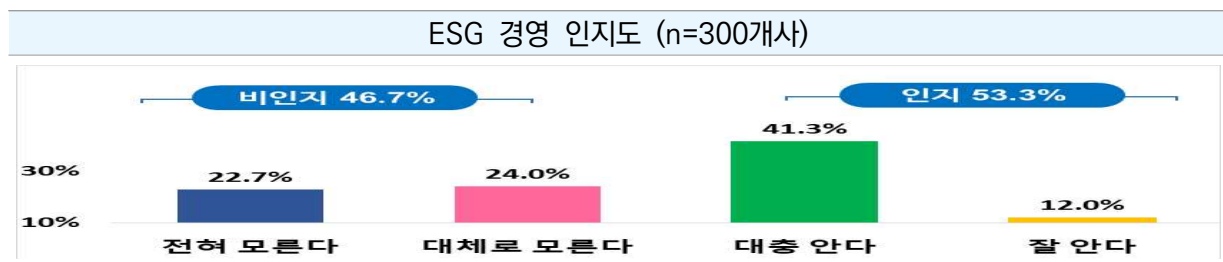
구 분		업체수 (개)	비중 (%)
매출액 (20년도)	5 억 미 만	24	8.0
	1 0 억 미 만	27	9.0
	5 0 억 미 만	105	35.0
	100억 미만	57	19.0
	300억 미만	67	22.3
	300억 이상	20	6.7
종업원 수	5 인 미 만	38	12.7
	1 0 인 미 만	48	16.0
	5 0 인 미 만	172	57.3
	100인 미만	33	11.0
	100인 이상	9	3.0
업종 대분류	금 속	45	15.0
	기 계	67	22.3
	섬 유	18	6.0
	식 료	19	6.3
	유 통	56	18.7
	전 기 / 전 자	29	9.7
	정 보 처 리	18	6.0
	화 공	25	8.3
	기 타	23	7.7
업종 중분류	자 동 차	32	10.7
	기 계 / 장 비	34	11.3
	금 속 가 공	41	13.7
	석 유 화 학	8	2.7
	고무/플라스틱	9	3.0
	전 자 부 품	14	4.7
	전 기 장 비	16	5.3
	식 료 품	29	9.7
	섬 유 제 품	17	5.7
	정 보 처 리	17	5.7
	기 타	83	27.7
내수/수출	내 수 기 업	222	74.0
	수 출 기 업	78	26.0
창업기업 여부	창 업 기 업	129	43.0
	창업기업 아님	171	57.0

02 中企 ESG 경영 대응 동향 조사 세부 내용

1 中企 ESG 경영 대응 필요성 인식과 준비 수준

1 中企 절반 이상(53.3%)이 ESG 경영에 대해 인지

- ESG 경영에 대해 中企의 절반 이상(53.3%)이 “알고 있다(대충 안다(41.3%) + 잘 안다(12.0%))”라고 응답함. “모른다(46.7%)(전혀 모른다(22.7%)+대체로 모른다(24.0%))”라는 응답도 절반 정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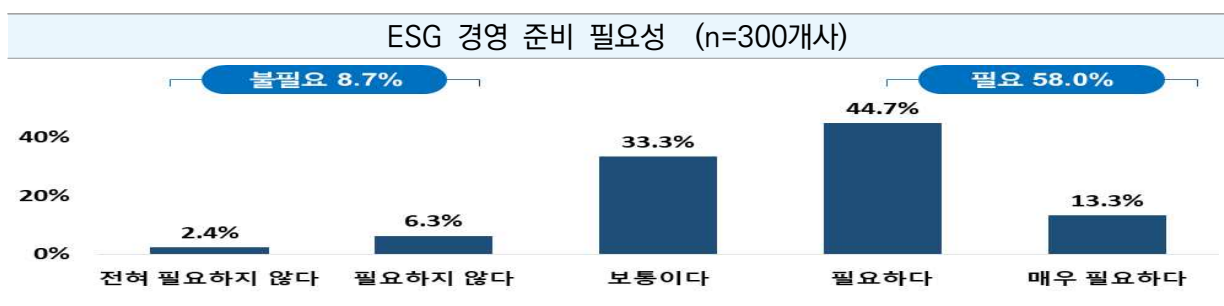
- “대충 안다(41.3%)”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잘 안다(12.0%)”, “대체로 모른다(24.0%)”, “전혀 모른다(22.7%)” 순으로 나타남
- 서울(60.0%), 인천·경기(58.8%) 등 수도권 지역의 인지도가 전체 평균(53.3%) 대비 높았으며, 비수도권 지역*의 인지도는 낮은 편

* 대전·충청(56.7%), 광주·전북·전남(48.5%), 대구·경북(45.5%), 부산·울산·경남(49.3%)



2 中企 절반 이상(58.0%)이 ESG 경영 준비가 필요하다고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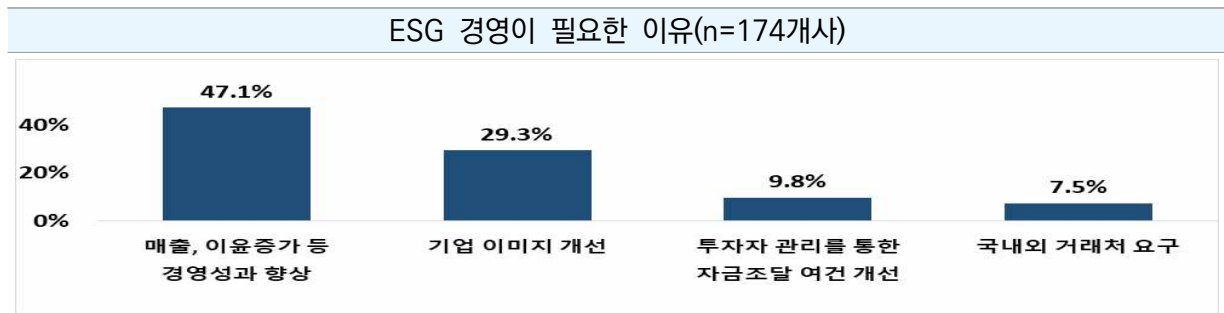
- ESG 경영 준비 필요성에 대해 中企의 10곳 중 6곳(58.0%)이 “필요하다(필요하다(44.7%) + 매우 필요하다(13.3%))”고 응답



- “필요하다(44.7%)”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보통이다(33.3%)”, “매우 필요하다(13.3%)”, “필요하지 않다(6.3%)”, “전혀 필요하지 않다(2.4%)” 순으로 나타남
- (매출액) 매출 규모별로 “필요하다” 응답은 “10억 미만(51.9%)”, “50억 미만(55.2%)”, “100억 미만(56.1%)”, “300억 미만(62.7%)”, “300억 이상(70.0%)”으로 조사되어 매출 규모가 클수록 ESG 경영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

3 中企 47.1%, ESG 경영이 매출증가 등 경영성과 향상을 위해 필요

- ESG 경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매출, 이윤증가 등 경영성과 향상”이 47.1%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기업 이미지 개선(29.3%)”, “투자자 관리를 통한 자금조달 여건 개선(9.8%)”, “국내외 거래처 요구(7.5%)”, “기타(환경 보호,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6.3%)”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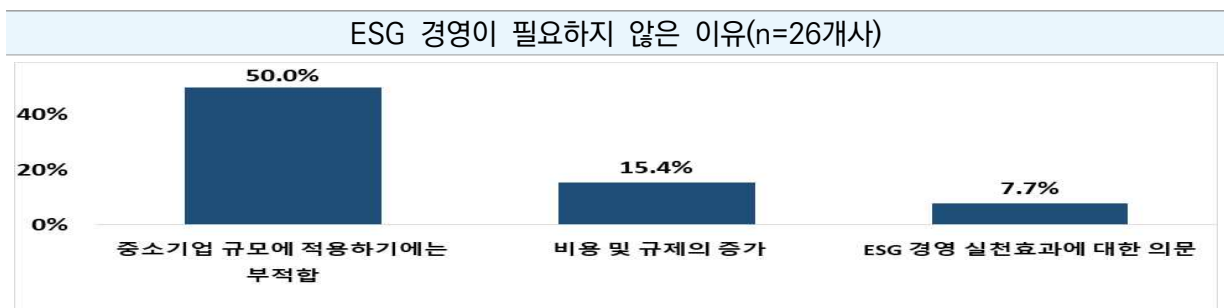


* ESG 경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174개사

- 화공 업종의 경우 “기업 이미지 개선(42.9%)”을 가장 많이 선택하여, 타 업종과 차이를 보임. 또한, “국내외 거래처 요구” 응답 비중이 14.3%로 전체 평균(7.5%) 대비 2배 이상 높은 편으로, 화공은 대표적인 탄소 多 배출업종으로 저탄소 전환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임

4 中企 50.0%, ESG 경영 中企 규모에 적용하기 부적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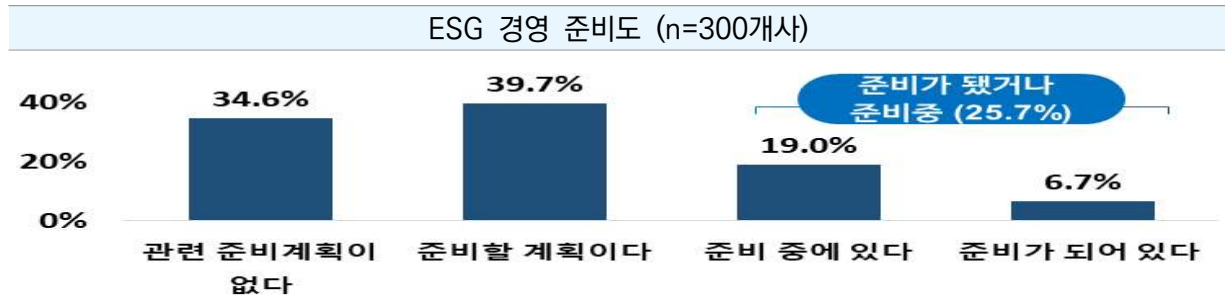
- ESG 경영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규모에 적용하기에는 부적합”이 50.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기업 경영에 있어 비용 및 규제의 증가(15.4%)”, “ESG 경영 실천효과에 대한 의문(7.7%)”,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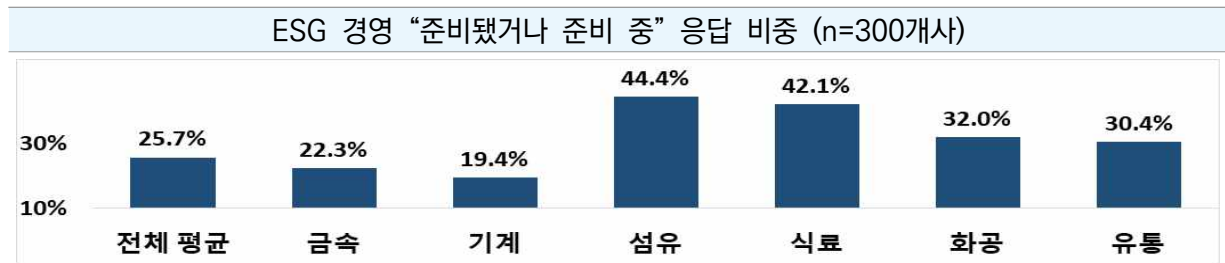
* ESG 경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26개사

5 中企 25.7%, ESG 경영 준비가 됐거나 준비 중

- ESG 경영 대응에 “준비가 됐거나 준비 중”이라는 응답은 25.7%에 불과했으며, “준비할 계획이다(39.7%)”, “관련 준비계획이 없다(34.6%)”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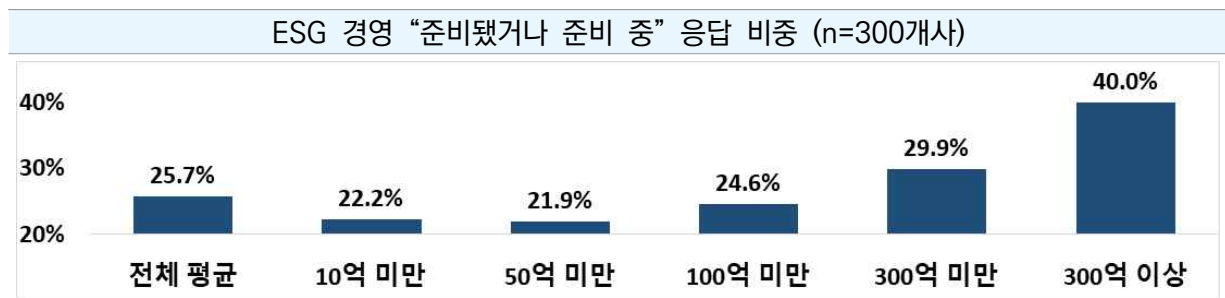
- (업종) 금속(22.3%), 기계(19.4%) 등의 전통 제조업은 “준비가 됐거나 준비 중”이라는 응답 비중이 전체 평균(25.7%) 대비 낮아, ESG 대응 준비도가 낮은 편이었음



- 반면, 섬유(44.4%), 식료(42.1%), 화공(32.0%), 유통(30.4%) 등의 업종은 “준비가 됐거나 준비 중”이라는 응답 비중이 평균 대비 높아, 준비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임
- 화공은 대표적인 탄소 多 배출업종으로, 저탄소 전환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아*, 준비도가 높은 것으로 보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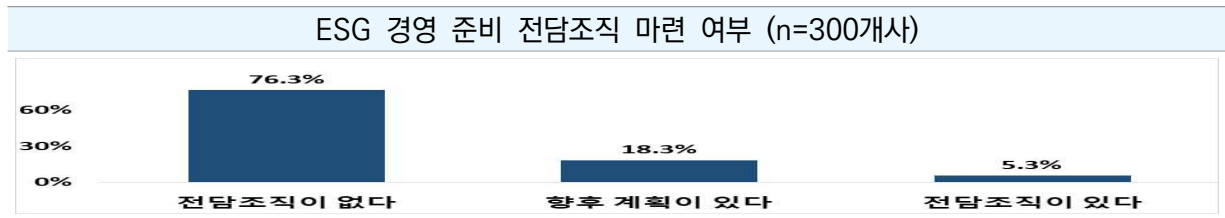
* 화공은 ESG 경영 필요성 이유로 “국내외 거래처 요구(14.3%)”라는 응답 비중이 전체 평균(7.5%) 대비 2배 이상 높은 편

- (매출액) 매출액 규모별 “준비가 됐거나 준비 중”이라는 응답 비중은 10억 미만(22.2%), 50억 미만(21.9%), 100억 미만(24.6%), 300억 미만(29.9%), 300억 이상(40.0%)으로 조사되어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ESG 경영 대응을 위한 준비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6 中企 76.3%, ESG 전담조직 없음

- ESG 경영 준비 전담조직 마련 여부에 대해서는, “전담조직이 없다”가 76.3%로 가장 높았으며, “향후 계획이 있다(18.3%)”, “전담조직이 있다(5.3%)” 순으로 나타남



7 中企 92.0%, ESG 평가 경험 없음

- ESG 평가 경험 여부로는 中企의 92.0%는 평가 경험이 없었으며,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8.0%에 불과함
- 업종별로 금속(15.6%), 화공(16.0%) 등 탄소 多배출 업종의 경우 ESG 평가 경험이 전체 평균(8.0%) 대비 2배 이상 높은 편으로, 저탄소·친환경 전환에 대한 요구가 타 업종 대비 높아, 평가 경험도 많은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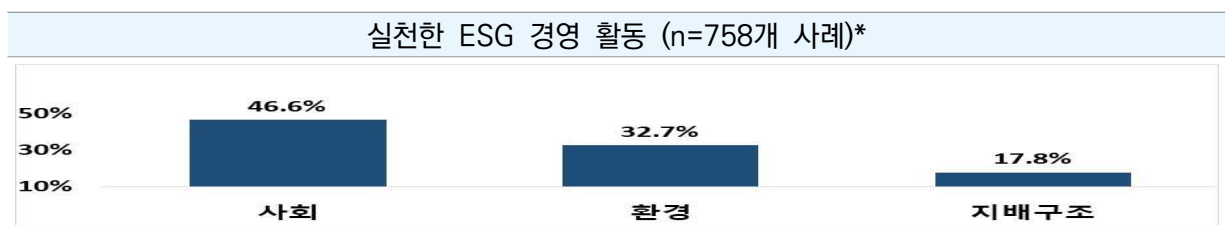
8 中企 79.2%, ESG 평가 결과가 사업에 긍정적 영향, 거래량 확대(73.7%)

- ESG 평가 경험이 있는 中企의 79.2%는 ESG 평가 결과가 사업에 영향을 끼쳤다고 응답하였으며, 평가 결과의 영향으로는 “거래 조건 개선, 거래량 확대”라는 응답이 73.7%로 가장 높았으며, “해결 후 납품(15.8%)”, “거래량 축소(10.5%)” 등의 순으로 나타남

2 中企 ESG 경영 실천현황과 취약 부문

1 中企 ESG 경영 중 사회부문 실천(46.6%)이 가장 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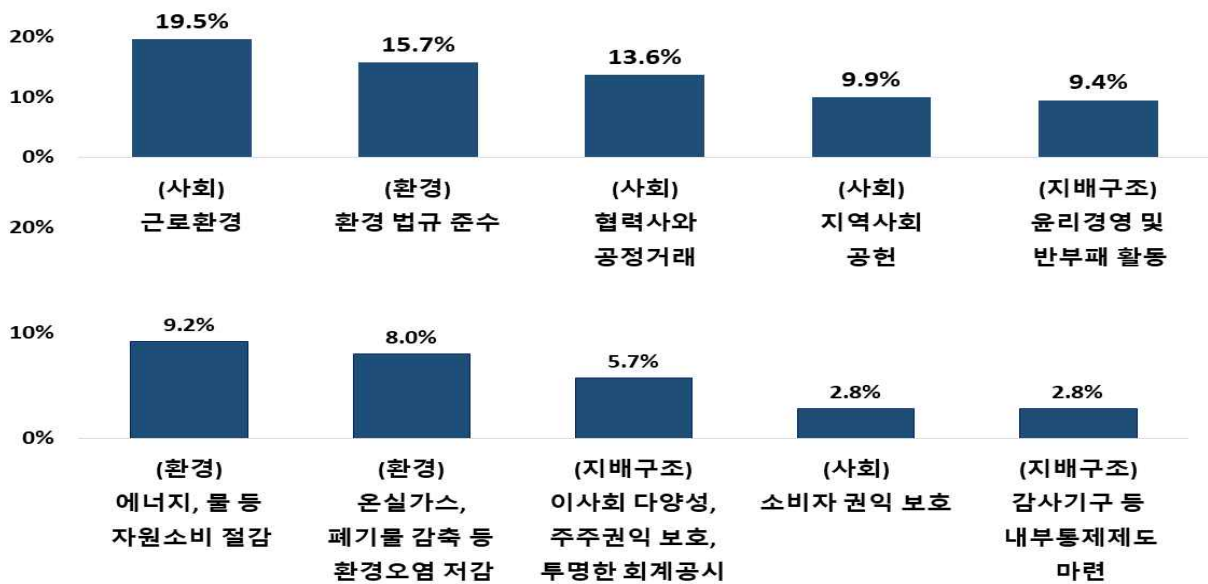
- 근로환경 개선(정규직 비율, 직원 역량 강화 등), 협력사와 공정 거래 등 사회부문 ESG 경영활동의 실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46.6%), 이어서 환경(32.7%), 지배구조(17.8%), 기타(사회, 환경에 좋은 영향을 주는 제품 개발 등)(2.9%)순임



* 응답기업이 복수 선택한 사례 758개

- 세부적으로 사회부문의 근로환경(정규직 비율, 직원 역량 강화 등)이 19.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환경)환경 법규 준수(15.7%), (사회)협력사와 공정거래(13.6%), (사회)지역사회 공헌(9.9%), (지배구조)윤리경영 및 반부패 활동(9.4%), (환경)에너지, 물 등 자원소비 절감(9.2%), (환경)온실가스, 폐기물 감축 등 환경오염 저감(8.0%), (지배구조)이사회 다양성, 주주권익 보호, 투명한 회계 공시(5.7%), (사회)소비자 권익 보호(2.8%), (지배구조)감사기구 등 내부통제제도 마련(2.8%) 순으로 나타남

실천한 ESG 경영 세부활동 (n=758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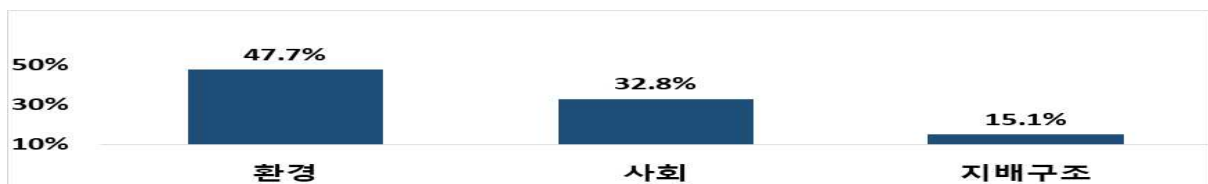


* 응답기업이 복수응답한 사례 758개

2 환경(47.7%) 부문이 가장 준비가 어려운 ESG 부문

- ESG 부문 중 가장 준비가 어려운 부문으로는 “환경부문(47.7%)”을 꼽았으며, “사회(32.8%)”, “지배구조(15.1%)” 순임

가장 준비가 어려운 ESG 부문 (n=522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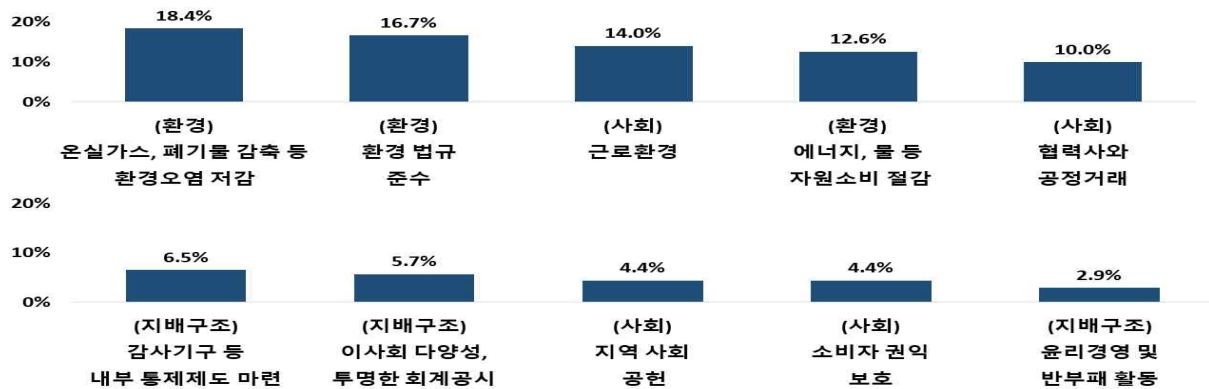


* 응답기업이 복수응답한 사례 522개

- 환경부문 중 “온실가스, 폐기물 감축 등 환경오염 저감(18.4%)”과 “환경 법규 준수(16.7%)”가 가장 어렵다고 응답함

- 이는 온실가스 감축 등 저탄소 전환을 위한 공정개선과 설비 도입을 위해서는 비용 부담이 수반됨에 따라,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어서, “(사회)근로환경(정규직 비율, 직원 역량 강화)(14.0%)”, “(환경)에너지, 물 등 자원소비 절감(12.6%)”, “(사회)협력사와 공정거래(10.0%)”, “(지배구조) 감사기구 등 내부 통제제도 마련(6.5%)”, “(지배구조)이사회 다양성, 투명한 회계공시(5.7%)”, “(사회)지역 사회 공헌(4.4%)”, “(사회)소비자 권익 보호(4.4%)”, “(지배구조)윤리경영 및 반부패 활동(2.9%)”, “기타(인력부족, 가이드라인 없음 등)(4.4%)” 순으로 나타남

가장 준비가 어려운 ESG 세부 부분 (n=522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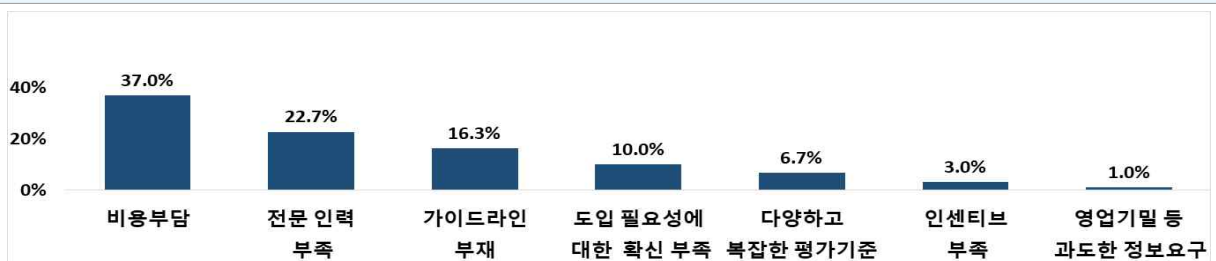


3 중소기업 ESG 경영 도입 시 애로사항과 필요한 정부지원 방안

1 ESG 경영 도입·실천 시 비용부담(37.0%)과 인력부족(22.7%)이 가장 큰 어려움

- ESG 경영 도입·실천 시 애로사항으로는 “비용 부담” 응답이 37.0%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ESG 전문 인력 부족(22.7%)”, “ESG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 부재(16.3%)”, “ESG 경영 도입 필요성에 대한 확신 부족(10.0%)”, “다양하고 복잡한 ESG 평가기준(6.7%)”, “ESG 경영 도입시 인센티브 부족(3.0%)”, “영업기밀 등 과도한 정보요구(1.0%)”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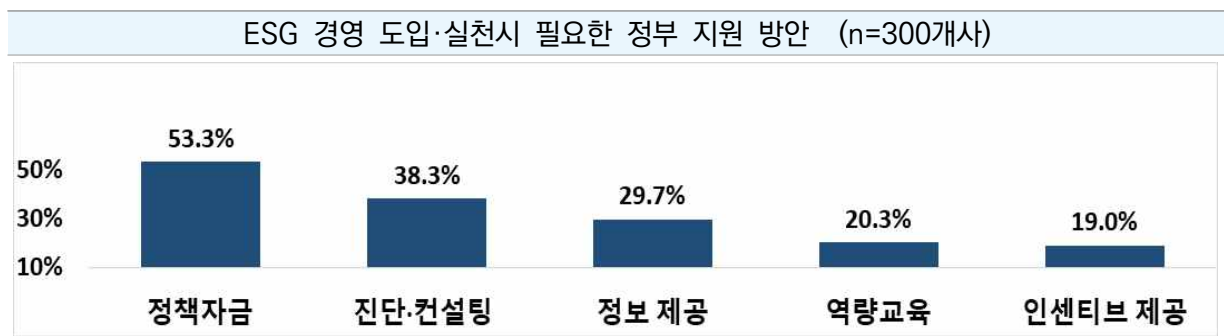
ESG 경영 도입·실천시 애로사항 (n=300개사)



- (업 종) 섬유와 식료 업종의 경우 “ESG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 부재(27.8%, 26.3%)”를 비용부담과 함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아 타 업종과 차이를 보임

② 정책자금(53.3%), 진단·컨설팅 지원(38.3%) 등이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 방안

- ESG 경영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 방안으로는 “ESG 경영 우수기업 대상 정책자금 지원”이 53.3%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진단·컨설팅(38.3%)”, “가이드라인 등 정보 제공(29.7%)”, “역량 강화 교육(20.3%)”, “ESG 우수기업 대상 인센티브 제공(19.0%)”, “기타(비용지원 등)(3.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업 종) 전기·전자(44.8%) 업종은 ESG 경영 가이드라인이, 식료(57.9%) 업종은 ESG 진단·컨설팅(57.9%)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타 업종과 차이를 보임

③ 中企 94.3%, ESG 경영 우수기업 대상 정책자금 우대 동의

- 응답 中企의 94.3%는 ESG 경영 우수기업 대상 정책자금을 우대하는 것을 동의함
- 우대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ESG 경영이 어려운 中企 대상 역차별, 소기업은 해당없음, 시기 상조 등으로 나타남

④ 기타 의견

구 분	주요내용
자금	◆ ESG 경영 우수기업 대상 정책자금, 저금리 대출, 이자감면 등 ◆ ESG 경영은 중소기업에게 비용부담이 크므로 장기저리 비용 지원
컨설팅	◆ ESG 정확한 진단, 컨설팅, 교육 확대, 비용 지원 필요 ◆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사례 중심) 제시 필요
인력, 홍보	◆ ESG 경영 전문인력 양성, ESG 경영 인식 강화 교육 ◆ ESG 경영 명확한 인센티브(가점, 세제혜택 등) 홍보
세제	◆ ESG 경영 도입시 세제 등 각종 혜택 지원 ◆ ESG 경영 도입 기업 대상 인센티브 제공
기타	◆ 업력 10년 이상 기업 대상 지속적 지원 ◆ ESG 평가에 대한 계량화 수치화 필요

03 정책적 시사점

1 ESG 인식 개선과 인센티브 방안 도입하여, ESG 경영 확산 필요 ▶▶

○ 중소기업 절반 이상은 ESG 경영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으나, 준비 수준은 다소 미흡

- 응답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53.3%)이 ESG 경영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며, 서울, 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인지도가 전체 평균 대비 높았으며, 비수도권 지역의 인지도는 낮은 편

* 서울(60.0%), 인천·경기(58.8%), 부산·울산·경남(49.3%), 광주·전북·전남(48.5%), 대구·경북(45.5%), 대전·충청(56.7%), 전체 평균(53.3%)

- 중소기업의 10곳 중 6곳 정도(58.0%)는 ESG 경영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으나, ESG 경영에 준비됐거나 준비 중이라는 응답비중은 25.7%에 불과하여, 준비도는 다소 부족

- 대내외적으로 ESG 경영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ESG 준비 전담조직이 있는 중소기업은 5.3%* 불과하여, 중소기업 ESG 대응 수준은 저조한 편임

* 매출 500대 기업의 23.8% ESG 전담조직 보유 (전경련, '21.4월)

○ ESG 인식 개선과 인센티브 방안 적극 도입하여, ESG 경영 실천 분위기 확산 필요

- 근로환경 개선(19.5%)과 협력사와 공정거래(13.6%) 등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실천도는 양호했으나, 감사기구 등 내부통제제도 마련(2.8%), 이사회 다양성, 투명회계 공시(5.7%) 등 지배구조 부분의 실천도가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지속적인 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 지배구조 분야 ESG 경영 실천 분위기 확산 필요

2 ESG 대응을 위한 금융, 진단·컨설팅 등 다각적 지원 필요 ▶▶

○ ESG 경영 도입 시 애로사항으로는 비용 부담이 가장 높아, ESG 경영 전환을 위한 정책자금, 보조금 등 금융지원 확대 필요

- 응답 중소기업은 ESG 경영 도입시 “비용부담(37.0%)”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으며,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방안 또한 “정책자금(53.3%)”이라고 응답하여,
- 중소기업 ESG 경영 전환을 위한 정책자금과 보조금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비용 부담 이외에, 전문 인력 부족, 가이드라인 부재, 확신 부족 등을 ESG 경영 대응을 위한 애로사항으로 꼽아, 인력양성, 가이드라인 제공 등 다각적 지원 필요

- ESG 경영 대응을 위한 애로사항으로는 비용 부담(37.0%) 이외에, 전문인력 부족(22.7%), 가이드라인 부재(16.3%), 도입 필요성에 대한 확신 부족(10.0%) 등을 꼽아,
- 자금 지원 이외에 ESG 경영 필요성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기업 대상 진단·컨설팅, 가이드라인 등 정보제공, 역량강화 교육 등 다각적 지원 필요

○ 업종별로 ESG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 방안이 달라, 세심한 정책 지원 필요

- 필요한 정부 지원방안으로는 “정책자금(53.3%)”과 “ESG 진단·컨설팅 지원(38.3%)”을 가장 많이 꼽았으나,
- 전기·전자 업종은 “ESG 경영 가이드라인(44.8%)”이, 식료 업종은 “정책자금(57.9%)”과 함께 “ESG 진단·컨설팅(57.9%)”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세분화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

3 ESG 중 환경(E) 분야 가장 취약, 적극적 정책 지원 필요

○ 중소기업은 ESG 부문 중 환경 분야 대응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저탄소·친환경 경영 전환을 위한 정책 지원 강화 필요

- 중소기업은 ESG 부문 중 환경 부문(47.7%) 준비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세부적으로 “온실가스, 폐기물 감축 등 환경오염 저감(18.4%)”과 “환경 법규 준수(16.7%)” 등의 준비가 가장 어렵다고 꼽아,
- 중소기업의 저탄소·친환경 전환을 위한 진단·컨설팅과 공정개선 및 설비도입 등을 위한 정책자금 등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이 가장 취약한 ESG 분야는 환경 부문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 필요

- 중소기업이 ESG 부문 중 가장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는 동시에, 실천도도 가장 낮은 부분은 “온실가스, 폐기물 감축 등 환경오염 저감”과 “에너지, 물 등 자원소비 절감” 분야임
- 해당분야는 설비 투자 등의 비용 부담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시에 실천도도 낮은 취약한 분야로, 중소기업 저탄소·친환경 전환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 필요



발 행 인 김학도
편 집 인 정책연구실
발 행 처 중소기업진흥공단
주 소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30 (52851)
전화 : 055-751-9273, 팩스 : 055-751-9411
홈페이지 : www.kosmes.or.kr

본지의 내용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